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 이

- 1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문 —————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 ————— 다 같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눠봅시다.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 예배의 진행 |

1.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 1) 설 명절 가정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 2) 먼저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가족 모두가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둘러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 4)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더라도 잘 말씀하셔서 함께 참여하여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을 사모하도록 합니다.
- 5) 예배를 모두 마친 이후에,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동기 간에 새해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 6) 음식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 7) 설 명절 가정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2.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 1) 인도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도과 성경 봉독은 인도자가 하거나 혹은 가족 중에 담당자를 따로 정하셔서 함께 참여하여도 좋습니다.
- 3) 말씀은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낭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

(개역개정 성경과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신 앙 고 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 같 이

-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 도 —————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 에베소서 4장 1~3절(신약 313면) ————— 다 같 이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 씀 —————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 가 족 대 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신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하고자 합니다.

1.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만큼 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좋아 보이거나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2. 하나 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될까요?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대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대하길 기대하십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가 성화 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참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이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족이 하나 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